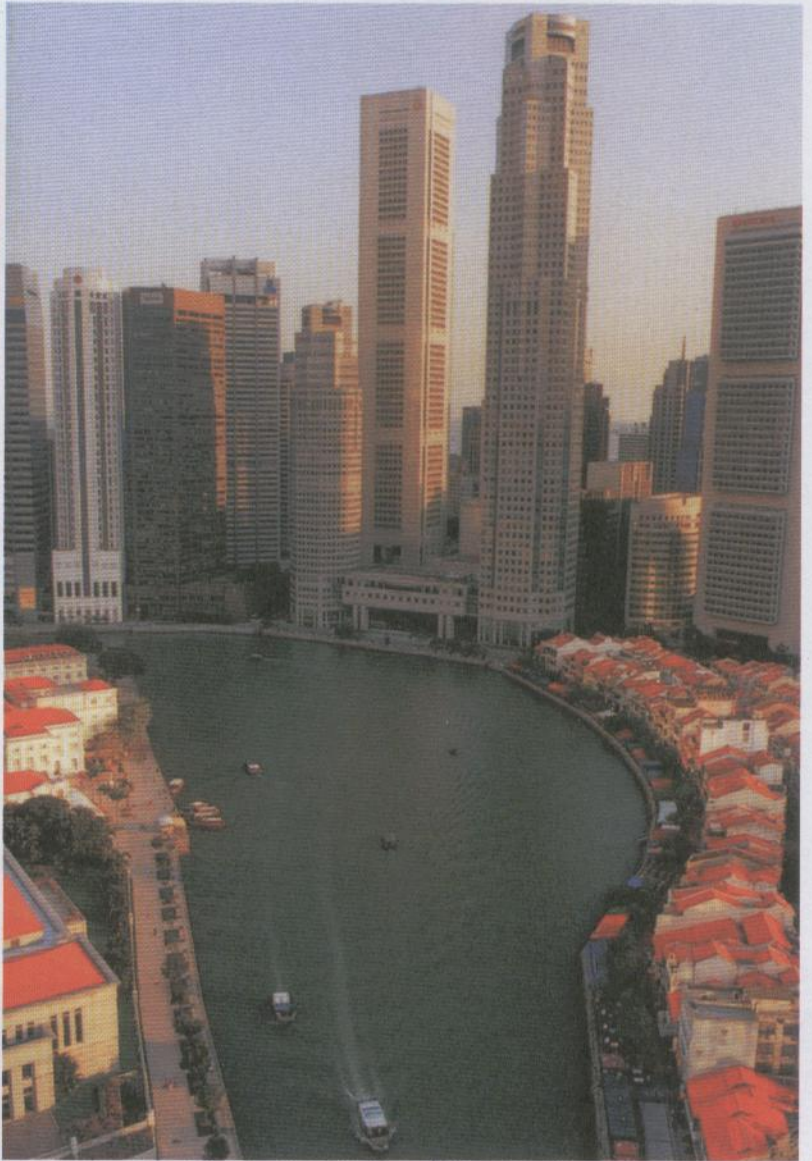


아시아 네트워크 Singapore Calling



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는 영리하게도 가구 무역의 허브라는 역할모델을 통해 아시아의 중심 페어로 성장해 왔다. 올해는 비즈니스 환경이 더욱 견고해졌다는 평을 얻으며 궤도에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었다. IFFS/ASF 2007을 기점으로 싱가포르는 전환점을 돌아 새롭게 도약하려 한다.